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활동나눔1-4

KEY가 생각하는 재일동포사회의 미래와 활동소개

송승재 | 재일코리아청년연합(KEY) 공동대표

■ 머리말

주최자에게서 주어진 주제는 “재일동포청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운동”이다. 아시다시피 재일동포사회에는 여러 단체가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의 국시를 준수하고 재일한국인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는 재일한국인에 의한 대중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가적, 법적보호를 받는 해외동포단체로서 조국을 옹호하며 그 부장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애국사업을 하면서 민족교육사업과 문화계몽활동, 조국통일운동을 펼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양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냉전시대 때에는 남북대립이 재일동포사회에서는 민단과 총련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대 조직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코리아 NGO센터”,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민투련) 흐름을 이은 “재일코리아인권협회”,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 그리고 이른바 "Newcomer"들에 의한 단체로 만들어진 “재일한국인연합회” 등등이 각각 다른 이념을 가지고 각각 다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풀뿌리 활동도 냉전시대 이후 너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편 재일동포운동에 있어서의 청년운동은 각 재일동포단체에서는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민단산하단체로서의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청년회), 총련의 산하단체로서의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한통련의 회원단체로서의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이 있고 그리고 상부단체가 없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청년단체로서 우리 재일코리아청년연합(KEY)이 있다.

우리 KEY는 위와 같은 재일동포사회단체 속에 상부단체가 없고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만들고 운동방침을 세우고, 조직 활동을 하는 단체이며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KEY활동을 소개해도 모든 재일동포단체들의 조감도를 그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민단” “총련”이라는 양대 조직 이미지가 강한 재일동포 운동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도를 일부분이지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다.

■KEY가 지향하는 것, 이념

(1)재일동포사회의 현상, 그리고 앞으로 과제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으며 한국적이나 조선적(朝鮮籍)을 가지는 재일동포는 일본 법무상 통계에 따르면 60만7419명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적" "조선적"을 가지는 재일동포 수는 1991년 69만3050명을 최고로 계속 하락 추세다. "한국적" "조선적"을 가지는 재일동포 중에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계속 일본에 사는 자의 자손인 특별영주권 보유자는 해마다 약 1만 명 정도 줄어들고 있다. 자연 인구감소가 아니라, 거의 다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원래 국적과 민족은 다르다. 국적은 일본 국적이지만, 민족은 우리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일본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귀화(歸化)"라고 말한다. 일본 귀화제도는 일본국적 취득 대신 우리 민족성을 포기해야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민족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성을 숨기기 위해서, 귀화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귀화했던 사람들이 소위 "눈에 안 보이는 코리안"이 되고 말았다. 한편으로 그 사회에서 민족성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국적을 민족성의 증명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약 2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된다. 거기에다가 재일동포와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Double 더블)을 포함하면 재일동포는 약10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된다. 우리 단체 회원규정에서는 회원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에 뿌리를 가지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요즘은 우리단체에서도 일본국적 취득동포(혹은 그 자손)이나 더블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일본국적을 가지는 재일동포라는 것 그리고 더블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고민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그러한 고민은 일본사회도, 남북도,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재일동포사회도 그들이 가지는 하이브리드(hybrid/이중혼성)성을 순수사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온 것을 반영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인구동태를 보면 재일동포사회의 과제는 재일동포사회 범위의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적" "조선적"을 가지는 특별영주자가 해마다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제까지의 재일동포사회는 "한국적" "조선적"을 가지는 특별영주자로 구성되는 사회였다. 하지만 그 범위 주변에는 일본국적을 가지는 재일동포 및 더블 재일동포도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확대되는 이른바 "NewComer" 코리안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재일동포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재일동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일동포사회, 일본사회, 그리고 한반도의 사회변화가 중요하며 또 동북아시아의 사회 변화도 중요하다.

(2)KEY가 지향하는 것

재일동포는 일제식민지시대, 동서냉전, 남북분단이라는 국가의 문제에게서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큰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에는 재일동포는 국민국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남이냐 북이야” “조국지향이나 재일동포지향이나” “조국의 국적이냐 일본의 국적이냐” 그러한 선택지가 재일동포 앞에 제시되고

그 속에서 재일동포사회운동도 여러가지 선택을 해왔다.

하지만 현실사회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많다. 오히려 단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는 것은 재일동포가 가지는 복합적인 가능성의 일부분만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도 있다. 재일동포는 하이브리드(hybrid/이중혼성)성과 해외동포 560만명 구성원으로서의 디아스포라(diaspora/이산)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그 하이브리드(hybrid/이중혼성)성과 디아스포라(diaspora/이산)성을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재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가능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그 가능성을 살릴 수 는 없다. 우리 KEY가 지향하는 것은 그러한 그것을 가능성으로 느낄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치로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재일동포가 스스로의 뿌리를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민족교육 자리의 제공

전술한 대로 다양성이나 차이점을 위협으로 느끼고 풍요로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는 자신이 “순수한” 일본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일본사회에 있는 제도적인 차별은 감소해가고 있지만 자신이 “코리안” 이라고 고백할 때 아직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사회는 변함이 없다.

재일동포 젊은이들이 자신 뿌리를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전국 6군데에서 매주 화요일에 한글강좌, 격주 금요일에 역사인권강좌, 매주 목요일에 코리아문화동아리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그 길을 선택한 개개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는 재일동포청년들끼리 만남과 교류의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재일동포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우리의 활동의 큰 목표다.

그러한 자리를 “민족교육” 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 “민족교육” 이 지향하는 것은 재일동포를 국가(한반도이든, 일본이든)중심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경(辺境)에 있는 존재로서의 재일동포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대로 “한국적” “조선적” 을 가지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본국적을 가지는 재일동포나 더블 재일동포가 자기 뿌리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단체에 참여하게 된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이든 국적이든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재일동포라는 존재에 대해서 개개인이 긍정적으로 고민하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일동포가 가지는 하이브리드(hybrid/이중혼성)성과 디아스포라(diaspora/이산)성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일동포가 가지는 가치가 인정될 사회만들기

재일동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위와 같은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 재일동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1)재일동포의 인권확립과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로서의 일본사회, (2)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의 갈등과 과잉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면서 남북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체제, (3)그리고 그 연장성에 구성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동북아공동체라는 세 가지가 실현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들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청년다운 활동을 하고 있다.

(1)재일동포 인권확립과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로서의 일본사회의 실현

재일동포 권리문제에 관해서는 1980년을 전후해 여러 가지 사회보장권리가 재일동포에도 부여되었다. 1991년에는 거의 모든 재일동포(그런데 모두가 아니다)에 안정적인 영주권이 부여되었다. 물론 아직도 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재일동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그 중에서는 특히 연금을 못 받는 재일동포 고령자에 대한 연금부여는 너무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이제 재일동포사회의 권리문제는 정치적 권리문제와 민족교육 문제에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는 특히 지방참정권문제가 큰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단이 그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총련이 반대하는 등 재일동포단체 견해도 일치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재일동포가 일본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사회 공권력지배 아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생활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이 더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재일동포가 공권력에 자신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가지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하면 마땅한 일이다. 게다가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본사회를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교육문제는 전술한 대로 재일동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재일동포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는 모든 재일외국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 가치가 인정될 사회다. 일본사회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재일외국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재일외국인이 많은 차별을 받으며 배타적인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씨개명으로 재일동포가 가지게 된 일본식 이름(통명 通名)을 새롭게 일본에 건너온 외국인들이 가지게 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이제 재일동포가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회 만들기는 다른 외국인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회 만들기와 똑같다. 일본사회를 공생사회로 바뀌기 위한 법제화와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보장을 위한 활동 ▽재일동포 민족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다른 재일동포단체들 및 일본 시민단체들과 협력하면서 하고 있다.

(2)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 갈등과 과잉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면서 남북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체제 실현

재일동포가 가지는 하이브리드(hybrid/이종혼성)성과 디아스포라(diaspora/이산)성은 동북아시아라는 공간에서 그 가치가 발휘된다. 재일동포는 국가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한 시각으로 일본과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존재다.

하지만 현재처럼 ▽역사 갈등 ▽과잉한 내셔널리즘 ▽한반도 분단 ▽전쟁 위기라는 동북아시아 상황아래서는 이러한 재일동포의 가능성이 발휘되기는커녕 국가에 중심이 없다는 것이 더욱 더 부정적으로 파악되는 가능성조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인식 공유” 를 지향하는 활동 및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활동 ▽한반도 전쟁 피해자 시각에서 전후보상 실현과 일본정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 ▽북일수교 실현을 요구하는 서명활동 ▽남북해외민단통일운동 참여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세과제 해결을 위해서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가지는 한일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활동으로서 ▽<한국-재일-일본> 청년포럼을 개최하면서 ▽KYC(한국청년연합회)와의 자매결연사업 ▽한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3)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동북아공동체 실현

한반도는 식민지배와 그 후의 동서냉전으로 고통을 겪고 왔다. 한반도도 분단되었다. 그것이 우리민족이 안고 있는 고통의 역사다. 그 고통의 역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국에 의한 제국주의적 지배나 식민지배가 올바르게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민족이 겪어 왔던 고통은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다. 인류전체와 깊은 관계가 있고 보편성을 가지는 고통이다. 그러므로 역사청산이나 남북통일을 위한 활동은 보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청산이나 남북통일을 위한 활동이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우리민족의 민족주의를 높이며 그 높인 민족주의가 배타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위험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모두 보편성을 지닌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 보편성의 기준이 될 가치관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동북아시아공동체라는 공간이야 말로 재일동포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 끝으로

우리는 1991년 재일한국청년연합(한청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03년3월에 단체이름을 재일코리아청년연합(KEY)으로 바꾸었다. 단체 이름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번에 단체명을 개칭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온 단체의 두 가지 성격 = "조직 정체성(identity)" 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는 코리아총체를 시야에 두고 다양한 재일코리아인 청년 모두를 아우름으로써 누구나가 참가 공헌할 수 있는 집단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현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재일코리아인 사회 또한 대단히 혼돈된 상황에 있는 현재, 행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을까 염려됩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에 더욱 재일코리아인이 '남' '북'이나 국적, 소속의 차이로 인한 분단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외코리아인 사회를 포함하는 코리아총체를 무대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격은 우리 스스로가 자립적 시민으로 구성된 「재일코리아인 NGO」로서, 시민의 공익을 지향하는 사회적 공헌을 활발하게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일코리아인은 한반도와 일본을 비롯한 국가존재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국가에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존재로부터 도피하지도 않는, 그리하여 자립된 시민 집단 NGO로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야말로 바로 지금의 혼돈된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가 지향하는 조직성격을 잘 보여준다.